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명곤



아마존의 와우라 족은 토기와 스테인리스 냄비를 함께 사용하며 발전기로 쪄지는 텔레비전을 즐겨 본다. 예전 브라질의 주요 수입원인 고무 채취에 동원됐던 마르보족의 상당수는 죽거나 마을을 떠났다. 여덟 살 소녀 릴리아나의 엄마는 병으로 죽고, 아빠는 도시로 나간 후 소식이 없다. 아마존 상류에 사는 마티스 족은 온몸을 검게 칠하고 나뭇잎으로 몸을 감싼 어른이 최초로 아이를 때리는 풍습을 지니고 있다.

는 또 다른 행성을 찾아 고달픈 여행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는 에너지가 고갈된 미래 지구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판도라라는 행성으로 날아간 사

아마존의 눈물, 아바타, 아이티

라를 얻기 위해 행성에 들어 온 주인공 제이크 설리는 판도라의 여인과 사랑을 하고 행성의 아름다움에 빠져 결국 행성을 구해낸다. 그런데 판도라의 자연을 파괴하는 주체도 백인이고, 그것을 구하는 주체도 백인이라는 설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의문에 대해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는 영화 '아바타'가 "백인 메시아가 세계를 구한다는 우화를 강화시키는 백인 관점의 인종적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첫 발을 디딘 신

대륙은 카리브 연안의 키스케이 섬이었다. 섬의 토착민들이 학살과 질병으로 몰살당하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와 노예로 부렸는데, 이들이 현 아이티 국민 선조다. 그 후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 가장 잔혹한 수탈을 당한 아이티의 노예들은 기나긴 독립 투쟁을 했고, 드디어 1804년에 세계 최초로 흑인 공화국이 되었다. 미주 대륙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공화국으로 독립한 아이티에 대해 흑인노예

들의 국가라는 이유로 국가 승인을 거부했던 미국은 1915년에 아이티를 점령해서 1934년까지 통치했다. 아이티가 독립 이후 34번의 쿠데타를 겪으며 최빈국으로 전락한 원인은 서구 열강의 탐욕스런 수탈과 군사개입과 점령을 반복했던 미국의 정책 때문으로 지적된다. 그 미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강진 피해로 시신들과 통곡 소리와 비명소리 가득한 '생지옥' 아이티의 구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니 흑인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백인들의 위세는 대단하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아마존의 숲이 파괴되고, 지진과 해일, 폭염과 강추위가 지구 곳곳을 뒤덮고 있는 지금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보는 시선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아바타'는 웃었지만, 아마존과 아이티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이티, 아마존, 아바타. 공교롭게도 모두 '아'로 시작된다. 이 '아' 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큰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 국익 도움 안된다

사법부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등 일련의 법원 판결 때문이다. 여기에다 20일에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광주병보도의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돼 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될 공산이 커졌다. 자칫 사법부 내부 문제를 넘어 정치적·사회적 이념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사법부의 독립이 아무리 중요한 명제라 해도 불공정 판결까지 비판에서 자유로운 성역일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의 사법부 흔들기는 너무 지나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모두 나서 법원의 판결, 그것도 하급심인 1심 판결에 대해 사사건건 시사비비를 하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기

갑 대표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의 집안에 몰려가 시위를 벌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랄한 비판도 좋고 열띤 논쟁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라 해서 판사의 신변을 위협할 정도의 집단 행동이나 사법부 전체를 이념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국 소모적인 논란은 사회통합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논란은 법원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 공평하고 정치 중립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했는지 핵심이 쏠려 있다. 이는 앞으로 2심, 3심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논란보다는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별 판결보다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광주가 적십자 회비 납부를 최하위라니

광주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적십자 회비 납부율이 최하위라고 한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민들이 낸 적십자 회비 납부율(고지서 발부 대비 참여율)이 18.9%로 전국 평균의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전국 7대 광역시 중 꼴찌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같은 생활권인 전남은 36.5%로 9개 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니 뭔가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적십자 회비가 재난 및 긴급 구조·구호, 취약계층 지원, 인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의 위상과도 걸맞지 않다.

우리는 흔히 광주를 '민주와 인권·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광주시민의 품격이자 자긍심이 된 지 오래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민주시민정신의 모태요, 인도주의 실천의 귀감이다. 5월 항쟁 당시 시민들 스스로 '김밥'을 나누고, 헌혈을 위해 병원 응급실에서 줄을 섰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총을 들었던 것은 민주·인권의 숭고한 가치 실현이 아니던가. 광주의 헌혈률이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회비 납부율이라는 단편적인 잣대로 광주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굳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송고한 '광주정신'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지금 대재앙으로 절망에 빠진 아이티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초 100만 달러 지원에서 1천만달러로 대폭 늘리고 평화유지활동(PKO) 파병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제 인도주의 실천은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류에는 사회공통체에서 먼저 실천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無等鼓

광주에 사케(일본 청주) 바람이 불고 있다. 도심에 한곳, 두곳 사케집이 생기기 더니 근자에는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성업하고 있다.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와인바 열풍의 뒤를 잇는 듯하다. 와인이 프랑스의 자랑이자, 사케는 일본의 자존심이다. 나라가 다르듯 두 술은 성격이 판이하다. 와인은 과일주, 사케는 곡물주로 태생부터가 다르다. 하지만 술에호가들은 마시기도 하고 차게 마시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와인을 데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글뤼바인'이라는 데워먹는 와인이 있다. 와인을 마시든 사케를 마시든 제일 중요한 공통점은 절제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나쁜 술이다.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 20조99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연세대 보건대학원)가 있다. 전투하듯 술을 마시는 것은 사회, 가정, 건강 등 어떤 면에서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일환 여흥대체부장 kih8@

사케와 와인



최근 광주비엔날레 이목연 사무처장이 펴낸 '술 속에 진실이 있다 (In Vino Veritas: 광주일보 1월 14일자 16면)'는 이 두 술에 대한 깊은 점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우선, 두 술 모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와인 마니아들은 품종, 지역, 연도 등을 따져 마신다. 사케도 지방마다 '지자케(地酒)'가 많아 맛과 향이 제각각이다. 또 알코올 도수가 낮아(15도 이내) 잘 취하지 않는다는 님은 점이 있다. 그렇다고 많이 마시다가 지독한 '발효주

기고

김장환



산악인 오은선 씨가 인류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안나푸르나 정상에 도착해 두고 약천후로 그만 되돌아왔으나 올해 봄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한다. 귀국 인터뷰에서 그는 "산을 막걸리 등반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근대 등산의 비조로 알려진 영국의 등반가 머머리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귀국 인터뷰에서 그는 "산을 막걸리 등반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근대 등산의 비조로 알려진 영국의 등반가 머머리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귀국 인터뷰에서 그는 "산을 막걸리 등반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근대 등산의 비조로 알려진 영국의 등반가 머머리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귀국 인터뷰에서 그는 "산을 막걸리 등반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등산은 시작된다

(登頂主義)가 아니라,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과정에 가치를 두는 등토주의(登路主義)를 가리킨다. 흔히 등산은 삶에 비유된다. 산을 오르는 데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나 조금씩 하지 않는 성실성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허함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의 다양화 및 특성화 추구는 바람직한 과제이다. 우리 전남의 경우, 24개의 기독교교과와 마이스터교과를 유지해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교육 특화 전략으로 창안된 '전남형 전원학교'를 올해에는 27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시책들 역시, 지역 여건을 장전화해 교육의 불투요성을 창출해 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제는 교육에서도 창의적인 루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 역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보다 발전적인 미래의 등로(登路)를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외국어 노출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잠재력을 지속 개발해 불투요성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인재 육성을

공교육은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토대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를 뒀다. 체계적인 독서 인프라를 통해 창의력의 발원지를 마련해 줘야 하고, 과학적인 외국어 노출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잠재력을 지속 개발해 불투요성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날개로 사는 것보다 되레 비싼 선물세트 '요주의'

며칠 전에 친척집에 가는 길에 선물세트를 샀다가 너무나 비싸다는걸 알았다. 즉 날개로 사는 것보다 되레 비싼 선물세트. 계산해보니 무려 26% 정도나 비싼 값이었다. 해당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포장가격이 1천800원에서 2천 원 가량 들어가고 세트도 만들기 위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공임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이었다. 더 웃기는 일은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 선물세트가 같은 마트의 인터넷 쇼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본부장: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의료 칼럼 전효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겨울 산행이 특별한 즐거움과 추억을 안겨준다지만 자칫 잘못된 허리 통증으로 오로 고통할 수 있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도중 또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허리 통증을 여러 가지 원인과 대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을 오르고 내려오다 보면 오를 때는 신체의 힘이 충분하고 별 어려움 없이 오르는 것이 보통인데 내려올 때가 종종 문제가 된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발목이나 무릎관절, 허리가 평소보다 많은 체중부하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겨울산행 후 허리통증 온다면

MRI를 통해 급성골절인지 확인해야 한다. 요즘에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통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쉽게 치료가 되는 편이므로 일단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산행 후 처음에는 허리만 가볍게 아파서 별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3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엉덩이와 다리쪽으로 통증 및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평소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로 기능이 떨어져 있다가 외부 활동으로 인해 악화되어 있는 디스크가 신경적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스키의 탈출된 정도에 따라 증상 정도가 다르고 치료방법도 달라지므로 이런 경우는 바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 만일 다리 통증이 생겼는데 한쪽 다리의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발목, 발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신경마비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빨리 MRI 촬영 후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광주우리병원 원장>

파출소에서 취객 난동... 구금·체포 등 법적 제재 필요

얼마 전 파출소에 불이 있어서 찾아 갔는데 한 취객이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파출소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관들은 한두 번 당해본 일이 아닌 듯 웃으면서 그 취객을 달래서 보냈다. 이런 상습적인 음주 소란행위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이유 없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사비를 걸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 초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절실하다.

www.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김규근·광주시 서구 쌍촌동

▲강영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